

“이름을 바꾸자 내 건설 인생이 바뀌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민기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내 꿈은 훌륭한 건축가였고 대학 올 때까지 쪽 변하지 않았다. 안식처를 제공하고 튼튼하고 화려한 건축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대학에 왔을 때 건설 산업의 현실은 냉혹했고 나의 막연한 꿈은 그 현실 앞에 무너졌다. 오자마자 선배의 첫마디가 ‘어렵다’였다. 어느새 내가 선배가 되어 후배에게 건설은 ‘어렵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왜 어려운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WHY를 모르니 해답인 HOW는 당연히 몰랐다. 그렇게 서서히 나의 꿈은 잊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하며 개명을 권해 신청했다. 개명 후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는 다짐을 하던 중 차세대건설리더 공고를 보았다. 취업준비생이라 신청하면 소위 스펙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내겐 건설에 대한 자그마한 불씨가 남아있었고 내 마음 속의 건설에 대한 장벽을 꼭 깨고 싶었다. 작은 도전이라 생각에 열심히 작성해서 신청했고 운 좋게 합격까지 했다.

NCLA는 이런 나의 건설인생을 바꿔주었다. 건설에게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사춘기 여중생이었던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아이돌같은 새로운 지식이 나의 맘 속 문을 열게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아카데미에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었다.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이다.

55 - 55명 학생의 커뮤니티. 같은 뜻을 가진 학생들과의 만남. 놀랐던 것이 토목, 건축은 물론이고 인문계 학생도 있었으며 지역으로도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 명문대학에서도 온 학생들도 있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위치의 정보를 공유하고 우물 안에 갇혀있던 나를 꺼내주었다.

7 - 7주간의 교육. 두꺼운 책을 3권의 책은 ‘내가 잘못 왔구나.’하며 울상 짓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수업은 나의 열정을 불태워줬다. 건설 산업을 올바르게 보고 똑바로 생각하게 해주는 수업이었다. 그것은 건설 산업에 대한 WHY와 HOW의 해답을 주었다.

5 - 5번의 현장학습. 교수님과 일반적으로 가던 현장과는 달랐다. 시공교육을 위한 준비된 현장이 아닌 실제 치열한 현장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발로 뛰는 현장은 확 와 닿았고 단장님의 말씀 중 하나는 나에게 비전을 제시해줬다. “이 현장은, 3000억짜리 이 프로젝트는 취소된 상태였고 만약 내가 없었다면 다시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나에게 꿈을 만들어 줬다.

외국에서는 건축과를 공과대학이 아닌 건축대학을 따로 뒀어 여러 학문을 함께 다룬다고 한다. 건축은 모든 경제학은 물론이고 경영학, 인문학등 모든 학문의 결합체이다. 나도 그랬듯이 한국의 공대학생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한다. 다르게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생각한다. 나는 아카데미를 끝난 지금 건축이 멋있고 화려하게 보인다. 그만큼 건설에 갈 길이 많아졌고 구체적인 꿈도 다시 찾았다.

아카데미를 마친 지금 누가 다시 내게 건설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은 전과 마찬가지로 “어렵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젠 건설의 미래는 “**다르다**”라고 대답 할 자신감과 뒷받침할 지

식이 생겼다. 현재 미래는 산업을 전과 **달리**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전처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만 짓는 학문으로 치부한다면 건설의 미래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친환경도 초고층도 건설관리도 유망한 건설 산업의 어느 하나도 단일 학문이 아니다. 모두 융합의 학문이다. 기존 건설의 패러다임을 깰 작지만 큰 도전이 필요하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글귀가 있다. 어찌 보면 나에겐 차세대 건설리더가 신청할 땐 몰랐지만 작지만 큰 “도전”이었다. 매 순간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도전이 모여 나의 건설인생을 위대한 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만약 예전의 나와 같이 다른 누군가도 NCLA를 고민하고 있다면 강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교육은 너의 건설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야”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